

간 증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저의 대학생활의 시작은 自信에 차 있었 습니다. 항상 필박이 있었던 고향을 떠나 드디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는 일종의 자유감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력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재수생활뒤의 대학합격이어서인지 혹독한 부모님과 고등학교의 필박에 대한 인내와 재수생활동안의 견도와 부흥,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던 아버지에게 집에서 다반사로 싸구려를 먹는 것을 볼사했던 신앙의 동지와 저의 인내와 견도의 성공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친구들은 저희의 자랑이며 이러한 경험들로 저는 항상 다른 친구들의 신앙이 어러보이거만 했습니다. 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당연히, 술을 어찌 면 극성스럽기까지 거절했고 학번M.T때 는 기도응답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복음성 가를 불러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단체를 찾아다니며 훈련을 받으려 노력하는 한편 교회동지들을 권유해서 기숙사 생활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 노력하였습니다. 서울대라는 것이 묘한 자존심을 형성 시켜 주었고 교회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으로 인정받던 생활들이 대학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날들로 1 학년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앞길은 하나 님께서 축복하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 니다. 저의 묘한 열심은 그칠 줄 몰라 당 시 다니고 있던 학교 근처의 교회는 저의 심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떠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래서 아학다니던 개척교회에서 절거야 되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년부부 중등부, 대학부등 다치는 데로 教師 班導師로 섬겼습니다.



박현식
서울대 석양사학과 졸업, 법대3년

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 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판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즐고 청년부 형제 자매들은 때로는 교회에, 때 로는 저의 모난 성격에 상처를 받고 떠났 다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예전에 교회동지들과 함께 전도했던

지들 내의 관계까지도 엄청난 감정의 앙 금을 남기며 소원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저는 학교에서 함께 식사할 사람조차 없 어 혼자자네기 일수였고 이것은 저의 인간 관계 파탄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었습니다.

학교에서 저의 교적인 행동이 독단적이 고 선배를 우습게 아는 것으로 비춰져서 과 공부해 처음부터 다른 학우들과는 달리 어떤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정보도 얻지 못하고 스터디에도 참가하지 못한 채 어 렷은 전공서적을 혼자서 독파해 나가야 했 습니다. 다른 친구들만큼 노력했으나 저 의 성격은 어찌지 않아 고향집에도 이렇다 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생활을 지내며 그래도 저는 하 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 주십사 해서 소위 비전에 대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비전을 주시고 앞길을 열 어 주시옵소서” 하고 각종 기도모임에서와 또 틈나는대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4학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인도 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그다 지 흥미를 끄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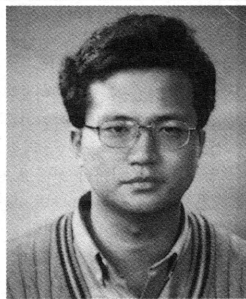
“하나님 훌륭한 비전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각종 기도모임에서 또 틈나는대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하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붙들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으나 그들은 요지부동 이고 설상가상으로 신앙안에 있는 친구 들까지 그들에 대한 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친구들이 신앙안 에서 한 사람 멀어질수록 기존의 신앙동

계속 흘러가는데 남들처럼 마음을 정하여 대학원준비를 하지도 특정 직장을 정하여 취업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 이 흘러 2학기가 되자 진로를 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 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 님 이름을 위해 봉사했는데 비전도 하나

허락해주지 않으니.....’하며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가기 싫어져서 아버지 눈을 피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주일에 배를 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취업을 던져 했지만 들어갔던 회 사는 평소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라 차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부모님을 설득하여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시공부를 한달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 습니다. 저는 이미 졸업생이고 아무런 적 도 없이, 될지 아닐지 지도 알수 없는 고 시라는 희미한 목표에 인생을 걸고 세월이 흐르는 느낌조차 없는 고시원 한방 밖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 하고 자문하곤 했지만 아무 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다 가움에 따라 천천히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두 장씩 시편을 묵 상하였는데 어느날 부딪힌 말씀이 있었습 니다. “그기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 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 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저의 의들이 모두 사라 지고 저는 거지처럼 바로 늘기도 힘든 한 평 고시방에서 아무런 방향없는 삶을 살 고 있는것이 제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한 신앙생활이었나를 보여주는듯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답답함과 쓸쓸함에 눈물흘릴 수 밖에 없던 제 인생에 기대할 것이 있다 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바로 그 가움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하고 말씀하시 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된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며 밤하늘의 유성처럼 저의 인생길 을 밝혀 주셨고 저의 1995년의 무직생활 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쌓여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심상구
법대중 사법연수원 생

고 선을 이룬다는 것이 부족한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성경 어떤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더라 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를 항상 덧입어서 내면에 묻은 때를 씻어 내고 자신의 인격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있도록 성숙하고 완성되어지도록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월간 제 9 호
1996년 4월 20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편집인겸 발행인 · 유은상 / 발행처 · 관악구 신림2동 103-198 대학촌 출판사내 / 전화 · 888-9111 FAX · 888-9112

■ 이달의 성구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8절)

서울대 각단과대 기독교인 모임 활발



▲ 각 단과대 기독교인들은 새학기예배를 본격적으로 복음활동에 돌입했다. (역대 기독교인 모임)

몇과에서 일기 시작한 기독교인 모임운동 이 점점 확산되어갈 뿐 아니라 각단과 대학 을 단위로한 연합모임으로써 발전되고 있다.

지난 3월28일 공대내의 몇몇과의 기독교 인 모임의 대표들을 비롯한 학생들과 강신 후교수(무기재료과)가 자리를 함께해서 공 대 기독교인 연합 모임 설립을 위한 준비모 임을 가졌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서울대 전체의 25% 에 이르는 규모를 갖고있는 공과대학내에 각과의 기독교인 모임을 활성화 시키기위하 여 이를 이끌어갈 지도적인 학생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 기독교인 모임을 지원하고 공대내의 기독교 들의 그리스도인에서의 교제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대 기독교인 모임을 결성 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의 준비를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공 대전체 모임을 갖기로하고 이를 위해 지도

를 계속하기로 했다.

참석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승복 (기계공 대학원) 김성환(항공우주) 김대용 양성훈(화학공학군) 신형주(컴퓨터공) 박 종후(전전제) 강성훈(금속공), 이에 대한 문의는 이승복(기계공학과 열전달 실험 실) Tel880-4278, 015-315-7684, 김성 환(항공우주공학3년)3472-0246

한편 약대에서는 지난 4월3일 새학기를 맞아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 기독교인 모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약학과의 이지양 박사(연 자매 차려진형제를 중심해서 작은 말씀 운동 기도운동으로 시작 되었던 이모임이)은 15명정도가 모이는 작은 그룹으로 커졌고 일주일에 한번 기도와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번의 아침묵상의 시 간을 갖고 있다.

지금온 비록 겐자씨처럼 작지만 새들도 이의 준비를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공 대전체 모임을 갖기로하고 이를 위해 지도

96년도 1학기 개강예배 3백여명 교수 교직원 참석

지난 3월 18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 서는 96년도 1학기 개강예배가 있었다. 예년에 비해 개강예배가 늦어진 감이 없 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학우들이 참석하였다. 약 300여명의 많은 학우와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 부터 아크로 찬양 인도팀의 찬양인도에 이 어 한국 헌리교회 협회의 권우승 목사님의 말씀선교와 기도회 시간으로 예배가 드려 졌다. 설교를 통하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의 행적을 통해 본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자세를 강조 했다.

대국 단기 선교여행 단기선교사 참가자 모집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에 하 겠쳐서 이루어질 대국단기 선교여행이 준 비되고 있다. 강신후 교수(공대 무기재료 학과)와 박인용 목사(빛과소금주간, 온누 리교회)부부가 인솔하여 대국 카렌족(어린 이 성경학교, 대중집회)과 대학생(총라롱 콰대학, ABAC대학, 랑캉행대학(방콕소 재))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남녀 각 10명씩 20명의 단기선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인원은 남9, 여3명이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여행을 준 비하고 있다. 해외 선교에 뜻이 있는분은 속히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란다. 연락 처: 강신후 교수 (무기재료공학) 880-7167 김성환 (항공우주 공학) 3472-0246

사 실

유대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제자들의 시대적 관 심에 대하여 부활의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 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공 동체를 향한 자기자신의 관심을 말씀하였고 이로써 제 자공동체의 운동 방향과 그들이 쓸 수 있는 힘과 수단을 지시하였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에 순 종하였고 그 결과 로마제국을 위시한 세속적인 권력의 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교회사적 사려에서 보면 사 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의 체계와 조직체계가 그것이 비록 교회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 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넘어서서 기능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위축되고 그 생명력을 잃었다.

지난간 2000년의 교회사에서 있었던 참으로 살리는 운동 참성령의 운동들은 예의 없이 모두 성령의 역사하 심에 따라 되었다. 종교개혁이 그렇고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노동자들 속의 신앙 부흥운동, 독일의 신앙각성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1920 - 30년대의 신 앙각성운동 이 모두가 그러했다. 이럴때마다 강조되었

던 것은 성경연구 기도운동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었다. 아무리 철학과 지성을 강조하는 대학이라 도 참성령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예외가 될 수없다. 교 회가 시대적인 열광주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 에 편승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록 민족주의가 되었던 민중 주의가 되었던 그 어떤 매력적인 것이던 간에 당시에는 시대와 함께가는 해감을 즐길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후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캠퍼스가 새로와 질 수 있다

는 교회적 정체감을 상실하고 반교회적 잘못된일이 있음 을 후회하게 된다. 물론 기독교공동체도 시대적인 일로 부터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항상 성경적 시각으로 볼 수있어야하며 성령의 육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수있어야한다. 나치정권의 등장 과 이에 동조하는 국수주의적 일부 독일교회에 대한 바 르텐신학선언등은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 제시될수있 을 것이다.

또한 교회적 힘은 결코 정치권력일 수도 없고 엘리트 의 힘일 수도 없고 민중적힘일 수도 없다. 이런 다른 힘 들이 우리가 쓸 수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런 것들로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 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야할 수있는 것이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 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일은 해낼수가 없다. 캠퍼스의 복음운동 복음화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의 인도 와 그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성공적으로 해낼수가 없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요 질서의 영 이시다. 우리가 만든 이론이나 기구들 속에 그분을 가두어 넣으려하지 말고 그분이 만드시는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도 무해야한다. 예루살렘에 세계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가 되게하 시는 영이시다. 나와 내조직을 중심한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중심한 일치가 캠퍼스에 임하여야한다. 새봄을 맞은 관악 캠퍼스에 생명의 불기운이 오고있는 것처럼 관악캠퍼스의 기독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서울대대학이 참으로 자유하는 대학 참성령으로 넘치는 대학, 이 생명으로 세계를 섬기 는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

법률실무가의 시작으로 10개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후후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입소식을 가 졌다. 더운 날씨 였지만 기제환 사법연수 원장님의 이계껏 들어왔던 것보다 가장긴 식사(試靜)를 듣고 법률실무가로서의 첫발 을 내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성도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일반은총을 주시고 신자와 불신 자들이 협동하여 양심에 의지하여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세워 공동의 질서를 파 괴하는 범죄를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게 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인간에게 세운 모든제도들 주를 위 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약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 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변전 2:13-14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서 세속정부를 세우시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특히 사법권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선언하여 사회정의의 선 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소송 실무기록을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하여 판 결서 공소장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답변서 들을 작성하는 실무연습을 해오고있다.

이일을 하면서 나는 법조인이 사회의 불 의를 제거하고 깨끗한 양심을 세우고 공 의를 선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 는가를 재삼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임무 라 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 시는가를 깨닫고 내가 들어선 법조인의 길에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다. 물론 기록 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에는 짜증이 나고 권태로움이 느껴지기도하였지만 실제 사 건에 접하는 법률가가 되면 이러한 사소 한 감정을 이기고 사건 당사자의 입장 에서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을 생 각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세상의 더러움을 정제하여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세상의 더 러움을 모두 접하여 보고 그것의 문제점에 노출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실무를 가르치던 어느 교수님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깨끗 한 직업이 아니다. 연탄을 가까이하면 아 무리 조심하여도 검정이 묻게 되는 것처 럼 법조인은 항상 죄의 더러움에 접촉하 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내면에 묻은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야한다.”하시 면서 일본의최고 재판소의 어느 대법관은 정년 퇴직후 진실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식당업을 경영하였다는 말씀을 덧붙 였다. 나는 이말을 들으면서 죄악을 정제

김퍼스소식

4·19혁명 36주년 기념식 거행 역사적 의의와 정신 이어갈 것 다짐

4·19혁명 36주년 기념식이 수유리 4.19묘지를 비롯해서 각 대학의 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3. 15부정선거와 자유당정권의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위는 독재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져가는 4·19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서 계승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4·19에 대한 정신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기독교적 재조명은 한국교회가 풀고 지나가야 할 과제이다.

등터오는 4·19아침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보인다. 4·19를 맞아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36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전도 폭발 훈련개최

매주 토요일 신림2동에 위치한 서울대 기독교센터에서는 민족복음화의 초석이 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전도 폭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기독교센터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김양태 목사(전도폭발훈련 지도자)를 모시고 하고

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기독교수로는 우규환 교수(화학교육)가 있고 이종용 장로(대학촌 교회)를 포함한 13명의 훈련자와 21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대 복음화 나아가서 민족복음화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 재학생, 일선 교회 집사, 교수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더욱 많은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 888-9111, 888-9112**

공대 날슨 목사 초청 강연회 간증과 복음전파 방법 강의

지난 4월 9일 32동 107호에서는 미국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날슨 목사를 모시고 기독교대생들을 위한 간증과 복음 전파의 방법 등에 관한 강연회의 시간을 가졌다. 날슨 목사는 미국 유수의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288권의 저서를 저작한바 있다.

언어학과 기독교인 모임 소개

같은 대학의 캠퍼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만남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만남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능력주시 주님께 감사 한다. 인문대학 언어학과 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그 분을 닮아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생들이 찬양과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귀한 시간을 갖는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임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도록 하시어 우리에게 산소망의 비전을 키워 가도록 해 주신다.

금년 3월 초부터 주안에서 연합한 지체들이 <서울대 기독교교회>사무실에서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적어도 한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것이 일차적이며, 본원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대학문화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직원 신우회 소개

역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모임에 헌신하고 있다. 서울대 교직원신우회는 1990년 8월 18일에 창립 되었고 지금은 수요일 12시10분에서 12시40분 까지 56동 101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말씀은 대하촌 교회 오성종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 수요일이 4번 있는 달에는 한번 자체 모임을 갖고 5달면 있는 달에는 2번 자체모임을 갖는다.

서울대학교 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법(안)은 크게 서울대학교 설치법(안)과 설치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회계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설치법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서 서울대의 특별한 위치를 선언하는 바탕이 되는 법안이며 시행령은 이 법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감독기관의 변경 ▲학교 조직의 개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법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묶여 일일이 재정경제원의 감독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 서울대의 자율적 예산집행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위상 재정립은 서울대를 교육부가 아닌 국무총리 관할 아래 들으로써 학교 행정의 효율화와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국립대에 대한 일괄적 규제지향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서의 조직 개편은 기존의 학부중심의 교육기능에서 대학원 중심의 연구기능으로 학교의 무게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체계를 모두 대학원 체제로 바꾸고 교수는 대학원에 속하게 되며 연구소들은 모두 대학원에 포함시켜 연구와 교육을 결합시킨다. 대신 학사과정 교육은 새롭게 만들 '학사교육원'을 통해 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2만여명을 유지하고 있는 학부정원은 2003년까지 25% 줄여 1만 5천명 선으로 줄이고 대신 7천900여명 가량 되는 현재의 대학원 정원을 두배로 늘려 궁극적으로 학부와 대학원 비율을 1대1이 되도록 한다. 또한 타대학출신의 학생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학교특별법(안)의 취지 제대로 살려야

양 승 목 (사범대 신문학과 교수)

한 쪽은 평등주의(또는 대중주의)를 내세우고 다른 한 쪽은 엘리트주의를 내세운다. 교육이나 학문의 기본원칙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문제는 이 논란의 기저에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깔려 있고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정적

적이라는데 있다. 서울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은 현재 모든 관악인의 의지이며, '서울대법' 제정은 바로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쟁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대는 마땅히 일반 국민의 심리를 헤아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연유야 어떻든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전달됨으로써 '특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을 초래한 것이다. 게다가 모두가 대입과외를 걱정하는 터에 굳이 영어, 수학, 입시과목으로 고집했던 몇년 전의 결정이나, 수능시험에 주관식 출제 비중을 높여 달라는 최근의 건의도 '특별한' 것으로서 다수 국민을 자극할 소지가 있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도 이제 홍보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서울대는 이 나라 최고의 인재를 독차지함으로써 최량의 원자재를 독점하는 '독점기업'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독점기업은 광고나 홍보를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사들이 원자재 독점의 정당성을 따지고 들 때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계적인 서울대를 원한다면 우수한 원자재의 독점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과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법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이런 속내사정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가 홍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기고

학원복음화와 대학기독교인 연합

본 포럼을 통하여 각 선교단체 간의 연합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소망 한다. 본인은 92년 복음, 민족, 역사 대회이후로 학원 복음화 사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합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하게 되었다.



고 직 한 전도사

사랑의 교회, 학원복음화 총무

1. 학원복음화의 정의
로잔 언약을 보던 학원복음화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또는 "문화명령"이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같으면서도 구별된다. 첫째로, 학원복음화는 대학 캠퍼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적어도 한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것이 일차적이며, 본원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대학문화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명령과 관계된 것이지오, 즉 대학 강단과 대학 정책,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생활양식까지 기독교적 정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 (기독교적 대학문화 건설을 위한)위에 무엇보다도 복음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문화창달도 기독교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1 현장 캠퍼스 중심의 사람
현장 캠퍼스 중심의 사람세우기를 하는 데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번째가

2. 학원 복음화의 전략과 도구
학원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과 도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난 뒤 "기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캠퍼스의 모든 영혼이 적어도 한번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 첫째로는 "현장 캠퍼스 중심의 사람 세우기"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현장 캠퍼스 안에서의 공동체 건설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비록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드러나는 양태는 그와 같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다시 그들을 통하여 새 생명을 만드는 전략이었다 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의 전략은 "지역 사회 중심의 사람 세우기"이다. 무엇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전도를 생각할 때 장소 개념이 너무 매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구적의미의 대학촌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통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지역 교회(모교회)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 중심의 사람 세우기"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기도 모색의 단계"입니다. 우선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기도하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캠퍼스 내에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거점 확보의 단계"이다. 이러한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전도와 성경공부, 제자훈련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학생 공동체 건설 외에 교수 및 교직원 공동체 건설에도 힘써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침투 연대의 단계"로서 이 단계에 들어오면 대규모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여기서 복음주의의 기독교 연합 운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연합운동의 중심점이, "기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각 단체와 "기연", 또 소단위 기독교인과 전체적인 복음주의 운동 사이에 전술적인 관계 정립,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단위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치중하게 되면 학과 생활과 선교단체 생활이 이원화되기 쉽다는 맹점을 조심해야 할 것

이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분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손쉽고 가능한 하나의 해결책이 과단위의 기도모임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처럼 캠퍼스에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학과 밖에서의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과 자신의 학과생활에는 충실치 못하고, 아니 충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캠퍼스의 전체적인 연계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캠퍼스 내에서의 전체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는 좋지만 실질적인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쉽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요지 장악의 단계"인데 이는 각 대학의 학과별 학회, 종교 동아리 연합회, 단과대별 학생회 및 총학, 학교언론 등 학교생활에서의 중요한 요지를 하나씩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근사치가 있게 구현하려는 사람들이 장악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앞의 단계들과 시간적인 순서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학원복음화를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지역 사회 중심의 사람세우기"이다. 이는 지역 교회 대학, 청년부가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S.F.C나 CAM과 같은 조직이 그 좋은 예이다.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는 지역교회적 접근 방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교회주의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패러처치(Para-Church)적인 대학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러처치적인 대학부(청년부)]는 대학 청년부가 그 교회안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니면서 선교단체들과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이다. 이런 경우 멤버십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에 있어서도 선교단체와 전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선교단체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학 청년부들이 하나의 대학 청년부를 넘어서 다른 교회의 청년대학부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Vision)들이 예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연"이 "지역 사회 중심의 사람세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기연"은 소위 패러처치(Para-Church)의 그룹으로만 위여져서는 안되고, 캠퍼스 대학 청년부 교세모임들로도 위여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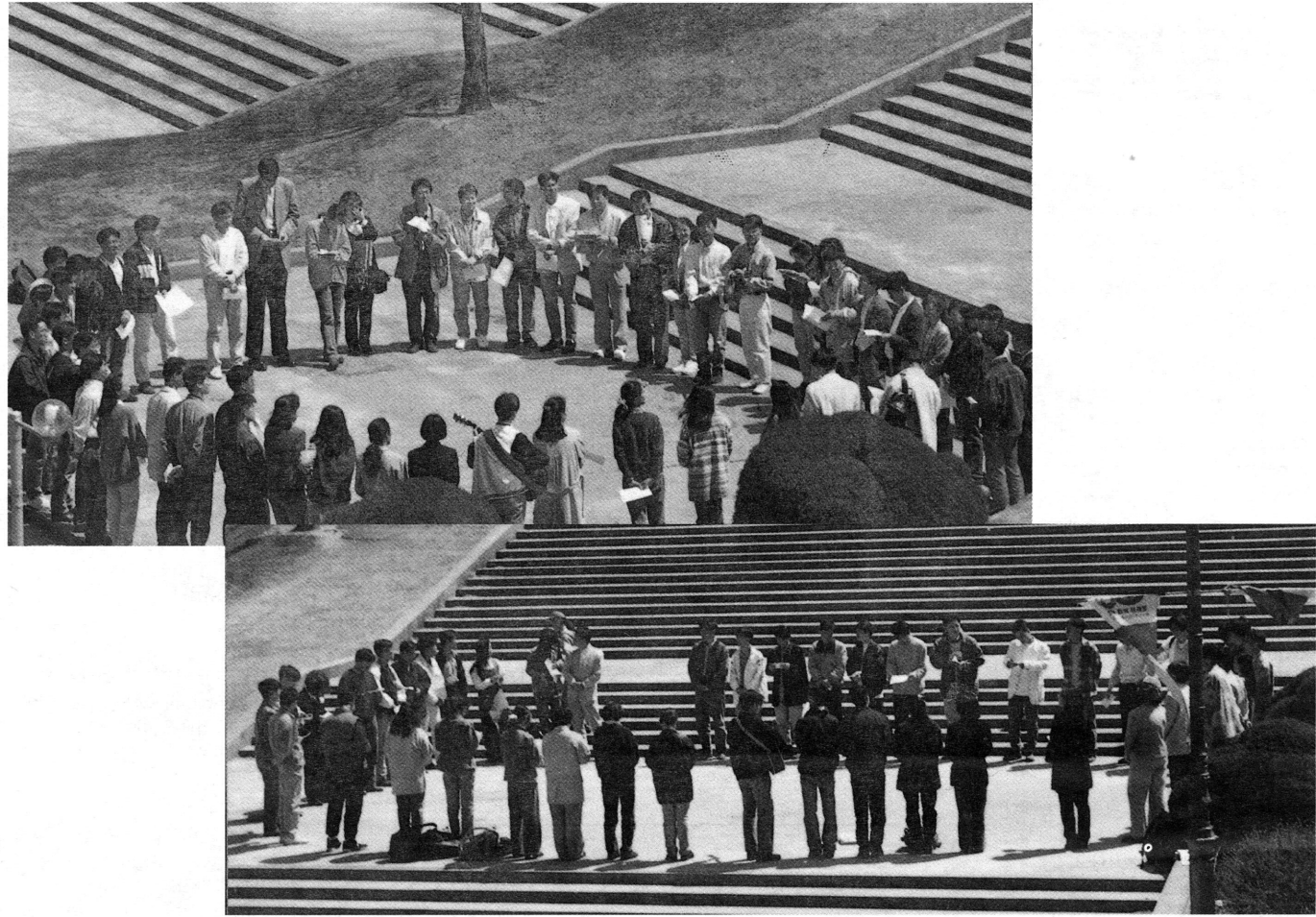
2.3 기타의 전략
그 다음에 기타의 전략으로는 "문서 및 방송 선교 전략"이라든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으로 "중보 기도의 전략"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전략"을 기타의 전략으로 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캠퍼스안에서보다는 밖에서 학생 뿐 아니라 청장년까지도 동참케 하자는 뜻이다. 즉 여전도회라든지, 권사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의 기도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중보기도의 후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학원복음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과 도구를 미리 생각하고 있을 때 "기연"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즉 두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해서 학원복음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첫 번째 전략인 "캠퍼스 중심의 사람세우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 "사람세우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싶는데 "기연"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연"은 너무 지나치게 이벤트 중심의 또는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으로 흘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세우기"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도리어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학원복음화에 큰 수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각 단계별로 사람세우기만 급급해 하는 - 편집자주) 각 단체마다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연합회측에서는 연합이 잘 안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연"은 "사람세우기"에 역점을 두면서 그러한 일들이 활성화되도록 돕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한국문재연구원 월례모임
강연주제 : 북한정권의 향후전망
강 사 : 박철호박사
일 시 : 1996. 5. 30 (하오 7시)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연락처 : 888-9111

2.2 지역 사회 중심의 사람

학보



매주 수요일 12시 아크로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함성

아크로찬양 모임은 1988년 2학기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의 대학 사회가 대응해야 했던 많은 정치 사회 문화적 모순의 도전 속에서 그 이전에 신발적으로 진행되던 학내 찬양모임은 당시 전 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1987년부터 1988년을 거치며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호헌 선언, 박종철군 고문 치사 및 은폐 조작 사건, 이한열 학우의 죽음과 6월 항쟁, 6.29선언 및 직선제 개헌, 대통령직의 은신,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제 5공화국의 비리가 폭로 되던 그러한 와중에서 캠퍼스 안의 기독교 학우들은 이 땅의 현실과 기독교 대학의 위상과 입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이들의 삶의 장 안에 깊숙히 파고들지 못하는 각종 찬양, 기독교 문화 운동 등이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며 나름대로 확산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한 때에 온갖 세상신의 세력에 장악되어 버린 서울대 캠퍼스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몇몇 교내 기독교학우들에 의해 캠퍼스의 중심인 아크로 광장에서 매주 수요일 마다 점심 찬양 모임이 시작되었다. 아크로에서 찬양을 드

리게 된 동기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대학, 관악 캠퍼스 안에서 찬양이 공개적으로 울려 퍼지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기독교 학우들과 여타 학우들을 향한 메시지를 지니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역사를 대변하며 캠퍼스의

찬양을 리드하고 있고 김현주 자매 (식품영양4년), 허준 (사회학 2년), 유진혁 (기계항공학부 2년), 이승준 형제 (기계항공학부 2년)가 함께 준비팀으로 섬기고 있다. 작년에는 보통 40내지 50명의 지체들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크로 찬양은 서울대에 재학중인 크

관악캠퍼스 안에서 찬양이 공개적으로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양에 자리잡고 있는 아크로 광장이라는 특수한 장소가 가장 적합하며 아크로 찬양은 여러 교회 공동체와 선교단체들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의 기독교인들이 연합하는 매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의미를 지닌다. 태동 8년을 맞고 있는 아크로 찬양은 매주 수요일 12시에 변함없이 드러지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항공우주공학과와 김성환형제가

리스크이면 누구나 설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그곳에 같이 서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울대의 뛰어난 역사가 서려있는 캠퍼스의 중심 아크로에서 주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예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이 뜻 깊은 모임에 서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보설명

모든 것이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치않는 영원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의 반석, 가장 절대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회랍의 과학자는 하나의 지렛대와 지구밖 멀리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점을 자기에게 준다 면 지구를 능히 움직일 수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아르키메데스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 점이라고 믿는다. 관악캠퍼스의 아침이 많은 기독교학생들에 의하여 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관의 식당에도 공학관의 식당에도 예술관의 식당에도 아침 7시 반 쯤부터 식탁식탁마다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는 그룹들로 가득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소망을 본다.

강학철교수의 책 안내

- (1) 「헤겔에서 니이체로」 카알 피비트 원저, 민음사.
- (2) 「두려움과 떨림」 카이케고어 원저, 민음사.
- (3) 「카알 하임의 기독교 윤리」 카알 하임 원저, 민음사.
- (4) 「도상의 실제」 강학철 저, 현대신서.

“진리는 나의 빛”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서울대가 예수의 빛으로 새로와 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상철 (한미친선협회 회장 변호사)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하여 모교의 선교 소식을 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LA의 친구들이 만날때마다 이야기 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희덕 (LA 영락교회 장로, 공인회계사)

“진리는 나의 빛”을 보고 서울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디옥 세계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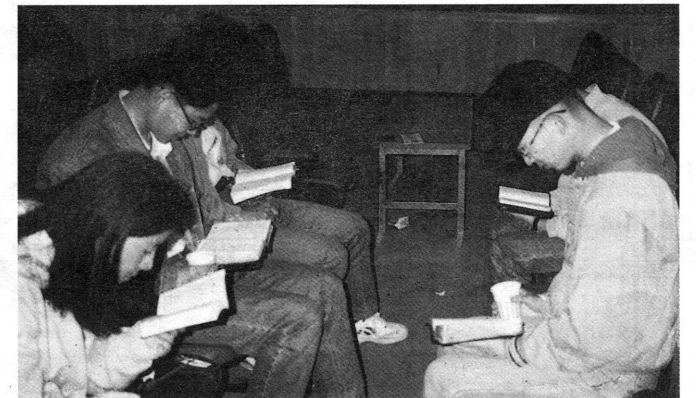
학보



▲ 서울대의 중앙부, 본부와 도서관 사이의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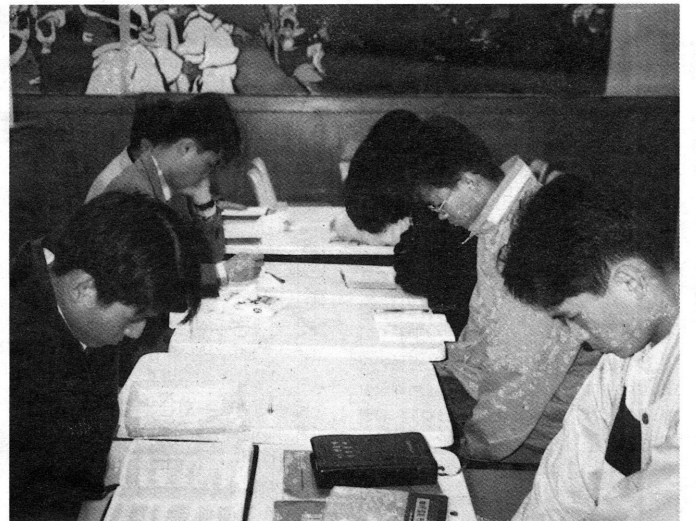
▲ 아침기도회를 하고 있는 I.V.F.회원들, 학생회관 I.V.F room 에서



▲ O.T.모임을 하는 '약대기독인 모임' 학생들, 학생회관 2층 리운지 에서



▲ 'Joy' 회원들, 학생회관 302호 에서 O.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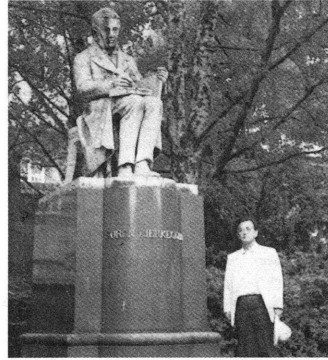


▲ 아침 O.T.모임을 하고있는 S.F.C.회원들, 학생회관 지하 식당에서

특 집

〈해체의 시대〉의 선각자 키아케고어 (2)

해체의시대와 싸워 이길 무기,〈단독자〉의 개념



강 학 철 교수

서울대학교교수, 키아케고어학회회장

키아케고어로 하여금 상기한 〈해체의 시대〉의 시대 정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한 가장 위대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의 〈단독자〉의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에서 제창된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Coram Deo)〉의 표어가 갖는 중세적 의미를 극복한 실존적 현실의 범주이며 동시에 인생의 보편적 인본이 될 기초 개념이었다.

키아케고어는 이 〈단독자의 개념〉을 자기의 주요무기로 제작하기까지 회람고전과 당대의 유럽문학을 섭렵했고, 특히 감성적 인생의 〈돈 지앙〉, 고전적·윤리적 인생의 〈파우스트〉, 그리고 〈영원한 방랑의 유태인〉의 〈아하스베르스〉를 자기 삶의 길잡이로 삼은 적도 있었다.

그가 22세의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부 학생으로 1835년에 모친의 고향 〈길레라이에〉마을 방문시에 기록한 일기에서 그가 청춘의 방향을 얼마나 끝장내고 싶었는지를 보여준다. "나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진정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 시는지를 통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나를 위한 진리〉가 될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위해 〈생사를 걸 수 있는 그런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중대 관심사이다.(Pap., IA 75, p. 53.)"

이러한 실존적 각성을 통해 그가 발견한 확고한 인생의 〈아르카메데스적 거점〉이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대결과 사상적 혼란의 와중에서 주체적 인생을 건설할 〈단독자〉의 개념이었다. 사실이 〈단독자〉의 개념은 그의 형제들의 잇따른 죽음과 그 자신과 레기네 울렌(10년 연하의 약혼녀)과의 파혼 사건 등으로 인해 형성의 계기로 삼고 있었지만, 그는 소크라테스적 사명을 터득할 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인격을 〈단독자〉의 이상형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연구했다. 그의 학위 논문 "소크라테스를지속

적으로 반성하는 아이러니의 개념"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회람정신의 자기 부정의 〈아이러니〉현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유대교 정신의 자기 부정의 〈아이러니〉 현상으로 인식했다.

그가 파악한 〈아이러니〉의 실존적 의미는 인간이 단독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길이다. 진리가 아니라 길이다.(Irony as the negative is the way; it is not the truth but the way. SV. XIII. p391 참조)

이제 소크라테스를 실존적으로 극복하려는 키아케고어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유럽의 한 작은 덴마크 왕국에서 〈단독자〉가 어떻게 〈크리스찬〉과 일치하는 동어로서 이념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제기와 해결방도를 찾아내는 일을 그의 청년 시대의 과업으로 삼았다.

그는 이 과업을 위해 철학, 신학, 미학 등의 연구 이상으로 성서연구에 몰두했다.

“그가 발견한 확고한 인생의 〈아르카메데스적 거점〉은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대결과 사상적 혼란의 와중에서 주체적 인생을 건설할 〈단독자〉의 개념이었다.”

그가 파악한 성서는 하나님의 도래와 그 하나님에 역사속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가장 진지하게 실존적 결단으로 밀어넣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었다. 그는 그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구사해서 성서가 운에서 발견되는 인간적 경험과 모험담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켰다. 그는 그것들을 추체험(relive, Nacherleben)하고 일관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관련성을 찾아 내려고 시도했다.

마침내 그는 인간의 삶을 이끌고 있는 법칙과 지도노선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 실존이 시간적 세계 안에서 전개하는 일차원적 생존의 개인과 집단의 활동원리일 수 있는 것이다. 키아케고어는 실존적 인간 활동을 〈단독자〉가 형성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로 파악해서 범주화시켰다. 그의 가명적 저자들의 일관된 논지는 모든 시대에서 인간의 삶이 감성적(심미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인 단계를 변증법으로 표출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 실존의 단계들을 〈단독자〉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인식한 키아케고어는 인간의 구성요소라 할 두 개의 보편적 본

질을 시간과영원, 유한과 무한, 육체와 영혼 그리고 필연과 자유의 모순관계에서 파악했다.

이러한 모순된 이질적 질성의 종합관계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지혜를 그리스도교를 통해 파악한 키아케고어는 실존의 여러 단계의 변증법적 종합의 과정을 〈선택〉과 〈비약〉의 운동에서 묘사했다. 그는 단독자가 되기위한 실존의 도상에서 어느 단계에서나(이것이냐 - 저것이냐) (Enten-Eller, Entweder-Oder)의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고 그 때마다 모험적인 결단을 감행했다. 그는 이러한 결단을 단독자의 정열에서 찾았고 이런 정열이 신앙의 에너지가 됨을 확인했다.

그렇게 그는 결혼이나 파혼이나에서 파혼을 택했고, 소크라테스나 그리스도나에서 그리스도를 택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근대화의 시대정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택한 것일까. 그는 단연코 돈키호테의 기질과 소크라테스의 조산술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이러한 일관된 시대정신과

비판정신은 그로 하여금 철학교수직과 목사직을 덴마크 왕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밖에 없게하였다.

그가 선택한 생계수단은 부친의 유산을 근거로 은혜의 이자를 받아 저술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의 저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대중적 시민들을 그리스도교 단독자로 각성시키는 선교운동이었다. 당시 단독자의 메시지를 회화화시켜 키아케고어를 덴마크의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유대인 경영의 대중 오락신문인 〈코르사르〉지가 있었다. 일년간의 논전 끝에 이겨낸 키아케고어의 필봉은 대중사회의 다중의 허구와 비진지성을 폭로한 예언자 사상가의 항의와 고발이었다.

이러한 그의 비판정신은 〈실존〉의 개념을 희석시킨 복음적 진리를 설교하는 기독교계와, 신앙의 변증법적 운동을 깨닫지 못하는 교권주의 신학자들과 에페퀴로스주의적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혼동하는 종교개혁이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판례제도하에서 그리스도교의 교회조직을 운영하는 목사와 신부들에게 〈신약성서〉의 그리스도교



키아케고어

를 키아케고어로 하여금 증언케 했다.

그는 스스로 당대의 순교자 역할을 할지는 못했지만 시대의 〈교정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가 이해한 〈순교〉는 진리의 증인의 존재방식이었다. 당시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 안에서 〈신약성서〉의 그리스도교를 수 입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역할은 소크라테스적 조산술을 활용해서 근대 시민사회적 그리스도교 세계의 환상과 착각을 깨우치고 감시하는 하나님의 〈스파이〉로서 경찰의 역할이었다. 결국 그가 택한 덴마크의 소크라테스는 종교적 시인으로 출발해서 시대악을 고발하는 경찰관을 거쳐 〈순교자적〉인 실존의 인생으로 마감되었다. 그의 1851년 9월 10일의 출간된 「자기 유희를 위해서」라는 표제의 〈진지적 강화〉속에서 그가 대결했던 시대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들의 시대의 악은 많은 결합이 있는 지성적인 체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개혁하려고 의욕하는 기만이다." (SV. XII. 480c참조) 키아케고어의 개혁운동은 단독자의 이상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2의 종교 개혁을 뜻했다. 이 개혁은 해체의 시대를 대체할 단독자의 복수와 공동체의 이념이었다.

그는 바로 이 이념을 〈순간〉의 팜플렛을 통해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순교자적 생활의 실천을 하나님의 〈특별성리〉로 수용한 키아케고어는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다.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천사의 찬양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 인생의 최후의 항로에서 하나님이 이루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일을 꾸며서, 인생의 안락을 빼앗기 위해 더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모든일을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하는 까닭에 그런일을 행한다고 하는 신앙을 견고히 붙드는 인간이다."

그와같은 인간은 마침내 천사가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도제시 또는 수련시기는 항상 가장 고달픈 때인 것이다." (Rap. X12A439 참조)

"진리는 나의 빛"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주어진 시명 잘 감당 하시기 기원합니다
남성력키나다 뽀뿌리 한인 소망교회 목사

열린 광장

방학중 서기연 임원모임 나아갈길 모색

캠퍼스 복음화 위한 방안 마련

96년 1학기 서울대 기독교 연합(이하 서기연)에서 섬기게 된 서기연 대표와 중앙위원들이 종강총회 이후, 1996년 2월 6,7일에 청평의 구석진 어느 한 민박집에서 MT를 가졌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서기연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이야기된 것은 우리들의 연합은 '동선'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풍선에 바람이 빠져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연합체는 이 동선처럼 규모는 작지만, 일단 그 동선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커다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함께 생각한 것은, '사람세우기'였다. 서기연이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물론, 마땅히 일해야 할 때는 일해야 하겠지만) 서울대 곳곳에서, 비록 드러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기본구성단위인 각 과와 각

단대의 기독교인 모임을 증보하고, 선교단체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세우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역적 코디네이터(Pastoral-Coordinator)'를 통해 서울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음이 너무나도 흔해져버린 이 때에 그 귀한 복음의 진정한 복음됨과 하나님의 참 하나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우리의 과제 앞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적은 무리여, 무서워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서울대 곳곳에서, 비록 드러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기본구성단위인 각 과와 각 단대의 기독교인 모임을 증보하고, 선교단체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서기 연대표와 중앙위원들도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캠퍼스 복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눅12:32)-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무릎꿇고 간구하겠습니다. 그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MT이후에도 서기연 대표와 중앙위원들은 방학중에 여러 번 모여서 서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개강임시총회와 개강예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서울대 안의 각 기독교인 모임(각 선교단체, 각 과 기독교인 모임, 각 단대 기독교인 모임, 교회 대학부 모임 등)을 신입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팸플렛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서울대기독교인 연합 중앙위원 일동

제 언

4·19 혁명 36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오늘도 정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절규하면서 죽음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그 학생들의 4.19를 다시 맞으면서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의 그리스도적 한국사회를 위하여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이에 대하여 대학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하리라고 본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사랑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을 아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키워 주려는 헌신적 노력도, 젊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따르고 살피서 지도자로 세워주는 지나간 교회적 전통도 배워서 이어 갔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기독교적 시각으로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도록 기독교인 교수 등이 참여하여 만드는 기독교대학을 위시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신문의 창간, 기독교 문화재단이 설립도 생각해 볼만하다.

그리고 대학촌에 기독교적 목적으로 그러나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생 종합관의 건립운영도 한번 시도해볼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은상(대학촌교회 장로)

수 상

티코와 그랜저

이강주집사(교직원신우회장)

오래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분의 승용차를 타고 강남의 어느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크리스찬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까지 못할 선거공약처럼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언뜻 사거리 정지신호를 지나쳐 딱지를 떼게 되었습니다. 면허증을 받아든 교통경찰은 조금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몇 번인가 우리를 힐끗 내려다 보았습니다. 잠시 긴장하고 있던 우리는 그 눈초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채고는 나오는 웃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열었습니다. "저 친구들에게 한 판도 주면 안됩니다. 내가 규칙을 위반했으니 딱지를 떼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풍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때문에 서로가 피해를 봅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삼이 있더군요..."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십여년 전에는 도

대로 남아 현재 우리들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눔이 없는 부자청년, 그의 모습은 빈부를 떠나서 저 자신부터 고쳐야 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불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개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가난한 소자의 작은 나눔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차 안에서의 대화는 곧 목격지에 도착하자 끝났고 그 후에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후 작은 교회를 개척 하셨습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꽤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얼마전에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도 7년 전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 큰 키에, 티고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예, 티코라요? 우리 목사님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데요!..." 그 집사님은 옛날 그 차안에는 없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간증, 과기독인 모임, 기독교아리, 캠퍼스에 관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학생, 선배, 교수님 누구든 쓰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진리는 나의 빛
888-9111